

투데이 칼럼

부안오복마실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어 화 세상 벗넌네야, 북반오복마실가게! 를 주제로 펼쳐지는 '2018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전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거듭나려고 부안군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 맞이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개막을 20여일 앞둔 부안오복마실축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대표축제로 거듭나려고 문화관광과 최연곤과장을 비롯하여 마실 축제 T/F 팀은 물론 700여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축제장 주 메인무대 동선으로 연결 접근성이 쉽게 확보하는 한편 그늘막과 인덕의자를 작년 한계 마당에서 오복마당 전체로 확대 설치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질서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아간에 오복을 테마로 한 시가지에 토파이어리 경관 조형터널 등을 설치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선 보일 예정이다.



이옥수

지방부안주재 국장

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축제 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유망축제 진입을 위한 10대 대표축제 도약의 축제로 거듭나려고 야무진 각오다.

특히 주행사장인 부안읍 서부터널 메인무대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예술축제, 전시·판매 및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즐거움으로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부안군 13개 읍면

별 특색을 살리고 '부래민복(扶來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는다)'의 고장 부안의 오복을 표현한 '복 받는 날 퍼레이드'가 최고의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예나 부안의 대표적인 제사 유적인 수성당 개광 할미에 관한 설화를 주제로 한 '오복 받아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위도따랫놀이 재현은 부안의 옛 전통문화를 부안 거리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개막축하공연', '마실 열린 음악회', '오색워터 Fun Fun마당', '따로 또 같이 플래시몹'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

그램이 큰 호응 속에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인 400여 명도 부안을 찾는다.

13개 읍·면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복받는 날 퍼레이드, 오색워터 Fun Fun마당, 위도따랫놀이, 오복마실 운동회, 결혼식 때 한복입고 대동 한마당 등 대표 프로그램은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로 치러진다.

군민이자 필자는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축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우러져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질적 수준과 성장속도를 고려해가며 조화롭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기를 주문해 본다.

부안오복마실축제가 10여 일 남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국으로 축제보다 성공적으로 치루려는 마실 축제 T/F 팀들에게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사설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어야

전북도와 도지사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노는 청년들이 73만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73만 명이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다. 그들은 무늬만 취업준비생이지 아예 볼기로 작정해버린 청년들이다. 그 73만 명중에 우리 전북 지역에 해당되는 취업포기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 태반이 일자릴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실상을 짐작해보면 마음이 상난하다.

전북도와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항상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다. '휴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유행된지도 이제 오래됐다. 그런데 그것은 자초와 비아냥이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병리 현상이 심각한 까닭이다. 수도권에서는 부도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런데 도내 젊은이들 중에는 상경을 했어도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도 처음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고향을 찾지 않은 젊은이들이 적지 않는데 그들의 심정을 알만도 하다. 자신이 실업자로 있음을 자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라도 그렇다. 장성한 자녀의 방황을 무한정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취업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 문이다. 전북도와 도지사가 도내 젊은이들의 취업에 마음을 쓰고 더 분발해야겠다.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언론사들이 문제 기사를 내놓을 때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다.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에 계속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그게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이를 악물어야겠다. 최근들어 전주 현대자동차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전북도와 도지사는 긴장해야 한다. 고대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봄철 도로 보수 공사

봄철인데 아직도 교통 불편이 여전하다. 상처부상이 도로 구간이 많은 까닭이다. 당국 관계자들은 민전을 기했다고 자부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평가이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눈에는 보이는 게 하나 둘이 아니다. 예전에 두 번 세 번 언급했음에도 어떤 도로의 구간은 예전 그대로이다. 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전주 시내의 도로 뿐만 아니라 군산 시내의 도로도 형편이 없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가 무슨 용담도 아니고 말이다.

예전에도 말했거니와 포트 홀이 문제이다. 폭 파인 채로 있는 포트 홀들을 속히 메꿔야 한다. 도시 중심부의 도로도 그렇지만 근교의 도로도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설마 벌일 없겠지 하는 정신 태도는 안일하다. 그런 마음이라면 녹장 보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봄 날씨가 때로는 번덕스러워 지난 주에는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는데 흙탕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도로의 사정을 세심하게 점검해야겠다. 도로 보수 작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들이 있다. 도로를 파헤치고 벌이는 작업들이 그렇다. 질서가 없어도 너무나 많다. 어떤 현장은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있으니 불쌍이 사납다. 남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여쩍 수 없다지만 과연 그대야만 하는가 반성할 문제이다. 연말이면 부랴부랴 작업들을 벌였는데 봄철인 지금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게 좀 불만스럽다. 관할 일로 도로를 파헤치고 작업을 하니 보행자 중에 그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오기는 보행자들은 보통 곤욕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의 도로는 계획적으로 작업을 벌였으면 좋겠다. 정보를 교환해두었다가 작업을 벌여도 될 일이지 아니가 물어보고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로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불편해서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앞으로 공사를 벌이는 당사자들은 작업을 질서있게 해야겠다. 불편한 공사 현장 주변을 오래도록 용납할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공사 방식은 불편을 길게연장시킬 뿐이다.

독자재언

공무집행 방해, 엄중한 처벌로 근절하자

요즘 언론매체에선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에 중요성에 대하여 심신치 않게 다루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인권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인권 및 약화된 공권력에 대하여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에게 욕심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처벌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 경찰관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형법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016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

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31명 중 968명(9.4%)가 징역형을, 5천117명(50.0%)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그 외 3천719명(36.3%)가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80%가 넘는 비율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낮은 형량을 받고 있으며, 이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의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단 경찰관에게 큰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 협박을 일삼는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 이때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선 경찰관의 공권력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호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재언

인권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이란 거창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인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 받지 않도록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이라면, 그 위에, 한발 더 나아가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인권

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원칙을 준수하며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권익증진에 노력과 동시에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1987년 박종철 군 사망사건 등 우리 경찰은 마음 이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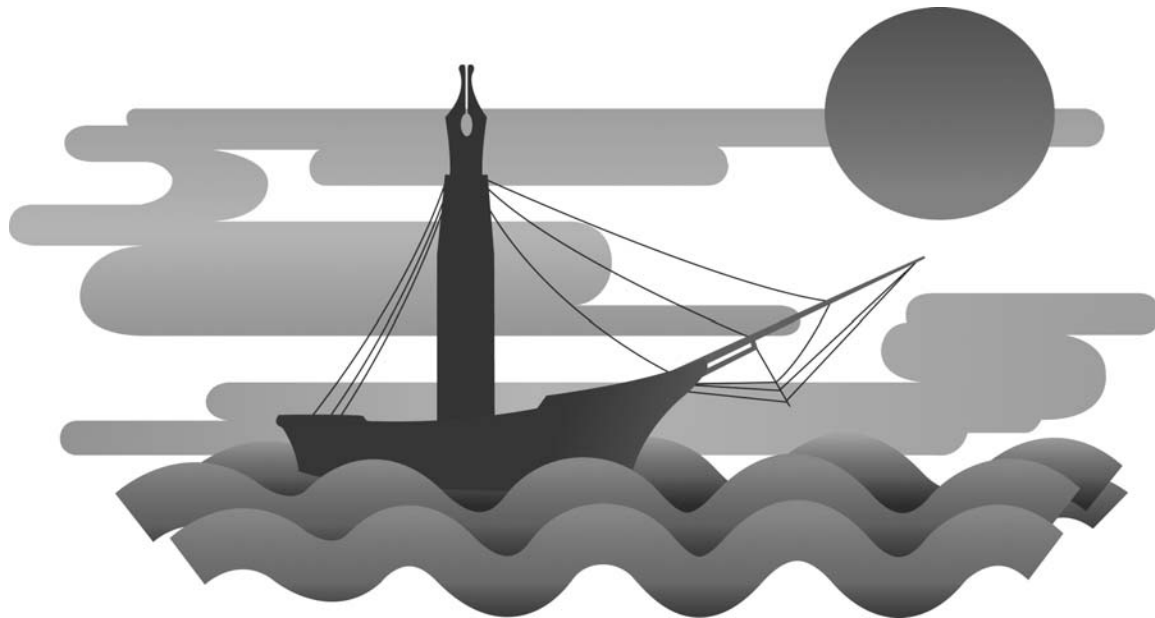
이에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인권교육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자유와 자격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히태문 남원시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권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